

공동체 소식

## 사순 제 4주일

중요신 아버지 하느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니, 뉘우치며 아버지께 돌아오는 모든 자녀를 사랑으로 안아 주시고, 빛나는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어, 어린양의 파스카 잔치에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3월 기도지향

-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가정

사순시기 운동

- 한 가족 성경 쓰기 : 사도행전
- 주일미사 30분 전, 공동 십자가의 길
- Rice Bowl 봉헌

첫 첨례 신심미사

- 첫 목요일 미사(3/7) : 오전 10시
- 첫 금요일 미사(3/8) : 오전 10시, 미사 후 십자가의 길
- 첫 토요일 미사(3/9) : 오전 10시, 미사 30분전 묵주의 기도

사순 특강

- 일시 : 3/10(일) 중심미사 때
- 주제 : 루카복음에 나타난 '재물'의 의미

영화 상영

- 일시 : 3/17(일) 중심미사 후
- 제목 : "No Greater Love\_사랑의 침묵"

기타

- 사순시기, 구역별 판공성사는 없습니다. 주일 미사 전, 개별적으로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 3월 달, 맨하턴과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쉽니다. 부활 대축일 미사는 본당 공동체와 함께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 3/10(일) 중심미사 후, 대축일 맞이 전례회의가 있습니다.
- 3/17(일) 중심미사 후, 평협회의가 있습니다.
- 부활 대축일을 맞아 제대 꽃 봉헌을 받습니다. 전례분과장께 문의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23	216	160/164	490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정수한(베 드 로)	이우영(가브리엘)
	정예찬(미 카 엘)	이원준(요 한)
차주	안동현(프란치스코)	정준구(파비아노)
	안지영(카타리나)	정병훈(보니파시오)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금주	최은미(아 네 스)	정준구(파비아노)
		박혜정(카타리나)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조장군(바 오 로)
		우숙정(아나스타시아)

애찬 봉사자

금주	김명은(안젤라), 김화년(요안나) 안현숙(크리스티나), 박옥희(헬레나)
차주	김주연(세실리아), 최선윤(마리아) 이영민(엘리사벳), 정지현(막달레나)

헌금 봉사자

금주	최은미(아 네 스)	문석찬(요 셉)
차주	문문주(엘리사벳)	김시연(엘리사벳)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시어 감사합니다!!!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2/24	103명	398불(180)	1,940불
3/3	105명	433불	1,900불

( )는 KAPA 2차 헌금입니다.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 사순 시기를 '은혜로운 회개의 때'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뉘우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자비로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작은아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며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를 청합시다.

### 성화해설

소경을 치유하는 그리스도 (엘 그레코, 1567년, 유화)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9,3.5)엘 그레코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을 다시 보게 고쳐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담하면서도 매우 섬세하게 그려냈다.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한 손으로는 소경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진흙을 개어 눈에 바르시어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소경이 죄인이 아닌 하느님의 놀라운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준비된 사람임을 알려준다.

지영현 시몬 신부 |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

제 1 독서 : 여호 5,9-11.10-12 < 하느님의 백성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파스카 축제를 지냈다. >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1.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그 찬미가 항상 있으리라.  
내 영혼아 주님안에서 자랑해보라 없는 이들 듣고서 기뻐들하라.
2. 너희는 나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우리 함께 그 이름 높여드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나를 들어주시고 온갖 무서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도다.
3. 우러러 주님을 보라 기꺼우리라. 너희 얼굴 부끄럼이 있을리 없으리라.  
보라, 가없는 이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근심 걱정을 씻어주셨도다.
4.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 그 둘레에 진을 친 당신의 천사가 그들을 구해냈도다.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보고 맛들여라. 복되다 그 임께 몸을 숨기는 사람이여.

제 2 독서 : 2코린 5,17-21 <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

복 음 : 루카 15,1-3.11-32 < 너의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



# “아버지시며 어머니이신 하느님”



오늘 복음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사들이 예수님에 대해 불평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실세들이 하느님을 벌하시는 분으로 상상한 것은 인간에 준해서 하느님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예뻐하고, 잘 듣지 않는 사람을 싫어하는 인간의 관행입니다. 인간에 준해서 하느님을 상상한 나머지 하느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어떤 아버지이시며, 그 하느님의 가치관이 지향하는 질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까. 그는 방탕한 삶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배가 고프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어서라도 굶주림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옵니다. 그는 일찍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가서 쾌락에 심취하여 살았습니다. 재물이 없어지자, 그는 이제 배가 고프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종들이 먹는 음식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는 집으로 옵니다.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주는 인물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서 할 말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아들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없고,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굶주림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집으로 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는 말합니다.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아들로 대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라고 명령합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오늘 복음은 이 말로써 아버지를 버린 아들은 죽은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살아 있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이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자비로운 하느님을 자기 생명의 기원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혹은 어머니 앞에 지킬 것을 다 지켜 벌받지 않는 길을 모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아버지라는 호칭에는 어머니의 역할도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베푸신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하느님이 우리 생명의 기원이시기에, 하느님의 질서, 곧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는 자비를 배우고, 익혀서 하느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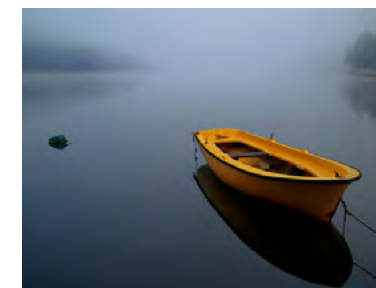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느님의 질서를 배워서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비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병자를 만나면 고쳐 주고, 마귀들렸다고 말하던, 간질 환자나 정신 질환자를 만나면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안에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셨다’, ‘가련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는 언급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신 것이었습니다.



# 빈 배 \_ 莊子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빈 배가 그의 배와 부딪치면 그가 아무리 성질이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배는 빈 배이니까. 그러나 배 안에 사람이 있으면 그는 그 사람에게 피하라고 소리칠 것이다. 그래도 듣지 못하면 그는 다시 소리칠 것이고 마침내는 욕을 퍼붓기 시작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그 배 안에 누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나 그 배가 비어 있다면 그는 소리치지 않을 것이고 화내지 않을 것이다.

세상의 강을 건너는 그대 자신의 배를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아무도 그대와 맞서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대를 상처 입히려 하지 않을 것이다.



# ‘신앙의 해’ 교육자료

## 제2장 사도신경



### 22. 천사는 누구입니까?

천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첫 영적 존재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천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천사’는 본성이 아니라 직무를 가리킨다. 그 본성은 무엇인가? 영(靈)이다. 그 직무는 무엇인가? 천사다. 존재로서는 영이고, 활동으로는 천사다.” 천사는 그 존재 전체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전령입니다. 그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기”(마태 18,10) 때문에,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시편 103[102],20)입니다. 순수한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적인 피조물들이며, 죽지 않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합니다. 그들 영광의 광채가 이를 증명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329-330항).

사람은 일생 동안, 생명의 시작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천사들의 보호와 전구로 도움을 받습니다. “모든 신자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다.” 이 지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으로, 하느님 안에 결합되는 천사들과 인간들의 복된 공동체에 참여합니다. 우리를 돌보는 수호천사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336항).